

게임 포털시장 지각 변동

한빛소프트 · 네띠앙 등 신규업체 참여 잇따라

글 권경희 기자

한빛소프트 · 네띠앙 등 대형 신규 업체들의 사업 참여로 게임 포털 시장의 지도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넥슨 · 한게임 · 넷마블 · 피망 · 엠게임 등 선발 업체들이 주도해온 게임 포털 시장에 한빛소프트의 <한빛온>과 엔씨소프트의 <플레이 NC>, 손노리의 <스타 이리아> 등이 뛰어 들었다. 이어 8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네띠앙도 거상으로 유명한 조이온, 만화를 원작으로한 <용비불패>를 제작중인 아발론소프트와 손잡고 게임 포털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랭킹닷컴 전체 순위에서는 넥슨 · 한게임 · 넷마블 · 피망 · 엠게임 등 선발 5개 업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 뛰어든 한빛소프트 · 엔씨소프트 · 네띠앙 등도 게임과 포털 시장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월 22일 <한빛온>이라는 커뮤니티형 게임 포털 사이트를 오픈한 한빛소프트는 하루평균 방문자 3만명 선을 기록하였고, <신야구> 게임 오픈을 기점으로 하루평균 방문자 수 16만명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타고 있다.

한빛온은 6월 3째주 처음으로 랭기순위 1000위 안에 진입한 이후 매주 2자리 수 이상 순위가 상승해 8월 1째주에는 3만명 가까운 방문자 수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위 안에 진입했다. 9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유지하며 9월 1째주(9월 4일~10일) 전체 순위 129위, 게임포털 순위 7위에 올랐다. 이 기간 중 하루평균 방문자수 10만명, 60만 페이지뷰에 달했다.

X2게임 또한 6월 4째주를 기점으로 6만명에서 9월 1째



주에는 10만명으로 2배 정도 하루평균 방문자가 증가해 게임 포털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신야구와 팡야를 앞세운 한빛소프트가 6개월여 만에 게임포털 전체 순위 7위에 진입하고, X2게임이 6월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또 다른 후발업체의 참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포털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네띠앙의 활약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게이머들이 흥미와 관심에 따라 게이머들이 몰리고 있어 우선 성공작 하나만 확보해도 네띠앙의 포털 시장에서의 운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초기 시장 진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네띠앙은 신규 게임 포털의 전신이 될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이온과 아발론소프트는 게임개발력과 게임 포털 서비스의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네띠앙이 조이온의 조이온닷컴 사이트를 인수하고 아발론소프트 지분 100%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기로 했다. 또한 조이온은 네띠앙 주식을 받고 조이온닷컴 사이트를 매각해 향후 네띠앙의 최대 주주가 된다. 3사는 9월말경 실질적인 조직통합을 완료해 '게임 포털 네띠앙' 호를 출범시켰다. 신규 게임 포털 네띠앙은 개발비만 50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신종 게임을 내년 중 3~4편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 이후가 더욱 기대된다. 🎮

‘소리바다’ 공방 갈수록 태산

음악업계, 소리바다·네티즌 등 극한 대립

글 권경희 기자

음 악업계와 소리바다 및 네티즌 간에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8월 30일 법원이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 소리바다의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리면서 P2P 업체에 대한 음반업계의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달 9일 소리바다를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소리바다의 서비스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간접적으로 채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8월 말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중지 및 프로그램의 배포금지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로 인한 일평균 손해액이 1억7,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간접강제를 인정할 경우, 소리바다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리바다가 연계된 영업상 이득 및 음제협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가처분 이후의 경과,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반행위시의 간접강제금은 그 위반이 있는 날마다 집행된다. 또 음제협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음악산업협회도 지난달 8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P2P를 사용한 네티즌 1,985명

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협회는 파일구리·소리바다·엔티카·썬파일·피팝 등의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개인간 음악 파일을 공유(P2P)한 사용자 1,985명에 대해 대대적인 고발장을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음악산업협회 측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신촌뮤직 등 8개 음반사의 음원을 파일구리·소리바다 등에서 불법 다운로드 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올 초 개정된 저작권법 발효 이후 계몽기간을 가졌지만 계속적인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용자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음악 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P2P업체 ‘파일구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음반을 불법 다운받은 이용자 15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음반업계의 이와 같은 행보에 서비스를 중지하고 있는 소리바다는 새로운 음악 서비스 ‘오르골’을 시작한다고 밝혀 음반업계와 P2P업체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가 깊어지고 있다.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오르골은 일종의 뮤직 싸이월드와 같은 개념”이라며, “인터넷 상에서 유저 개인의 온라인 MP3플레이어 기능을 하는 개인별 웹 스토리지에 음원을 올려두고,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싸이월드와 마찬가지로 유저끼리 오르골 1촌, ‘음악 친구’를 설정할 수 있다”며 “음악 친구끼리는 서로의 웹 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룹 캔디맨 2집 수록곡 MP3 무상 배포

실수요자의 냉정한 평가 기대

글 권경희 기자

법원의 '소리바다 P2P 금지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그룹 캔디맨이 자신들의 2집 음원을 무상 배포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캔디맨은 자신의 2집 타이틀 곡 '스마일'과 후속곡

'비오는 날'을 제외한

전곡의 음원을 벅스

와 캔디맨 홈페이지

지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했다. 또한

이통사와의 시스템 정비가 필

요한 통화연결음도 빠른 시일내에 무상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요즘처럼 음원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업계 현실에서 현재 활동중인 앨범 수록곡 음원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그 파장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수로서 힘든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캔디맨은 "애써 힘들게 만든 앨범인데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고 무상으로라도 우리 노래를 들려주고 팬들의 냉정한 평가를 얻고 싶다"고 밝혔다.

"당초 소리바다에서도 무상 배포를 계획했다가 소리바다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가 왜곡되게 비춰지는 것이 싫어 포기했다"는 캔디맨은 P2P서비스에 대해 "무조건 네티즌들을 불법자로 몰 것이 아니라, 우선 현재의 음반 시장 붕괴의 또 다른 축인 잘못된 음반제작관행의 시정을 통해 합법적인 유료화의 틀 안으로 유도하는 상생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관행에 대한 건

강한 감시자로서 네티즌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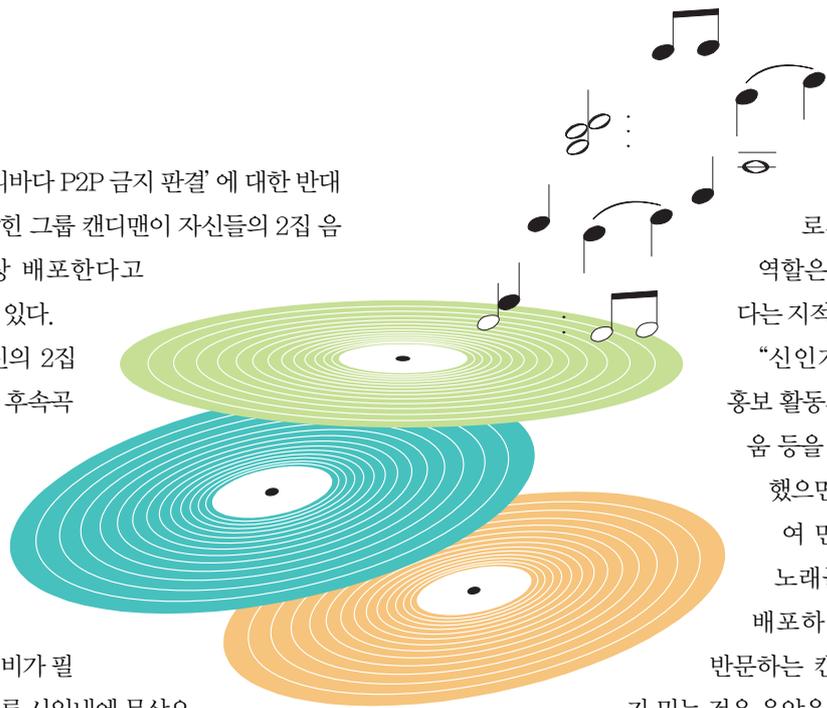
"신인가수로서 음반 홍보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오죽 했으면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자식 같은 노래들을 무상으로 배포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캔디맨은 "저희가 믿는 것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

의 마인드"라며 "음악을 듣고 마음에 들면 음반을 구매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무상으로 내려 받은 이후 자신들의 음원을 유료로 구입하는 네티즌 중 추첨해 '사상최초 캔디맨의 1인 모바일 콘서트'를 마련해 자신들의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요즘의 음반시장은 실력은 있으나 자금액이 약한 신인 가수는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막강한 자금액을 바탕으로 하는 몇몇 메이저 기획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고착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음반의 완성도보다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 중시 경향이 반복되며 음반의 질은 낮아지고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캔디맨의 실험이 무모한 도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지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



리눅스 월드 내년 서울서 개최

KIPA · IDG, 행사 관련 MOU 체결

글 양기석 기자

리눅스 분야의 세계 최대 전시회인 '리눅스 월드'가 200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달 22일 미국의 IT미디어 그룹인 IDG와 '리눅스 월드 코리아 2006' 개최와 관련한 협력 조인식(MOU)을 체결하고 한국 내 공개SW 발전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SW진흥원과 IDG간의 제휴는 리눅스 월드를 통해 한국 내 공개SW 관련 업체들의 세계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 업체들과의 제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골자. 또한 IDG는 오는 11월 개최될 유럽 최대의 리눅스 전시회인 '리눅스 월드 프랑크푸르트 2005'를 비롯한 향후 모든 리눅스 월드 전시회에서 한국의 공개SW 업체들을 적극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데이빗 코스 IDG 월드 엑스포(International Data Group World Expo Corp) 사장은 "현재 한국 정부의 공개SW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볼 때 한국은 장차 공개SW 분야의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며 "IDG도 전세계 18개국에서 순회·개최되는 리눅스월드 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공개SW 비즈니스와 공개SW업체들의 해외진출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현진 KIPA 원장은 "현재 SW시장에서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라며 "이에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고용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로 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지난달 22일 IDG와 '리눅스 월드 코리아 2006' 개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개SW를 적극 육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SW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개SW 육성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KIPA가 IT미디어 그룹인 IDG와 협력함으로써 한국이 전세계 리눅스 산업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하루빨리 공개SW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개SW시장은 최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공개SW 기반으로 추진되고 내년 국가 정보화사업 가운데 24개부터 37개 프로젝트가 공개SW 기반으로 추진될 것이 확정되는 등 세계적인 리눅스 강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합의된 리눅스월드 코리아 2006은 내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국적 공개SW업체들을 제치고 한글과컴퓨터가 메인 스폰서로 선정됐다. ●